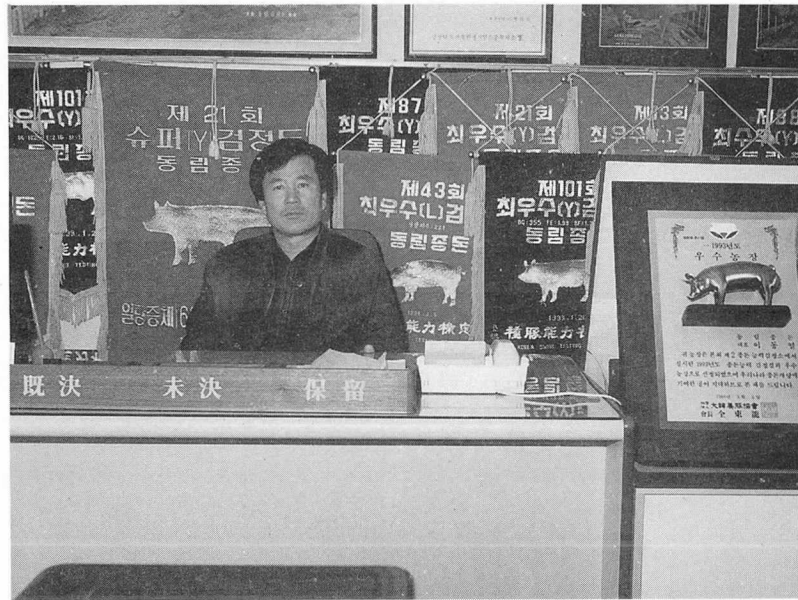


# '93 제2검정소 우수농장상 수상농장 동림종돈



취재 : 박정렬 기자

'92년도 제1검정소 최우수농장상을 수상했던 동림종돈(대표: 이동열, 경남 창원군 진전면 임곡리 54-6)이 '93년도에는 제2검정소 우수농장을 차지해 지난 3월 5일 본회 제2검정소에서 '93 제2검정소 우수농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92년 4월 4일 제2검정소 제21차 경매때 사상 최고가인 1,500만원에 낙찰된 슈퍼돈을 배출한 농장으로도 잘 알려진 동림종돈은 지난 한해동안 14두의 챔피언돈을 배출했고 선발지수 217점, 합격두수 98두, 합격률 69.9%로 228.9점을

득점, 제2검정소에서 평가한 '93 종돈출품성적순위 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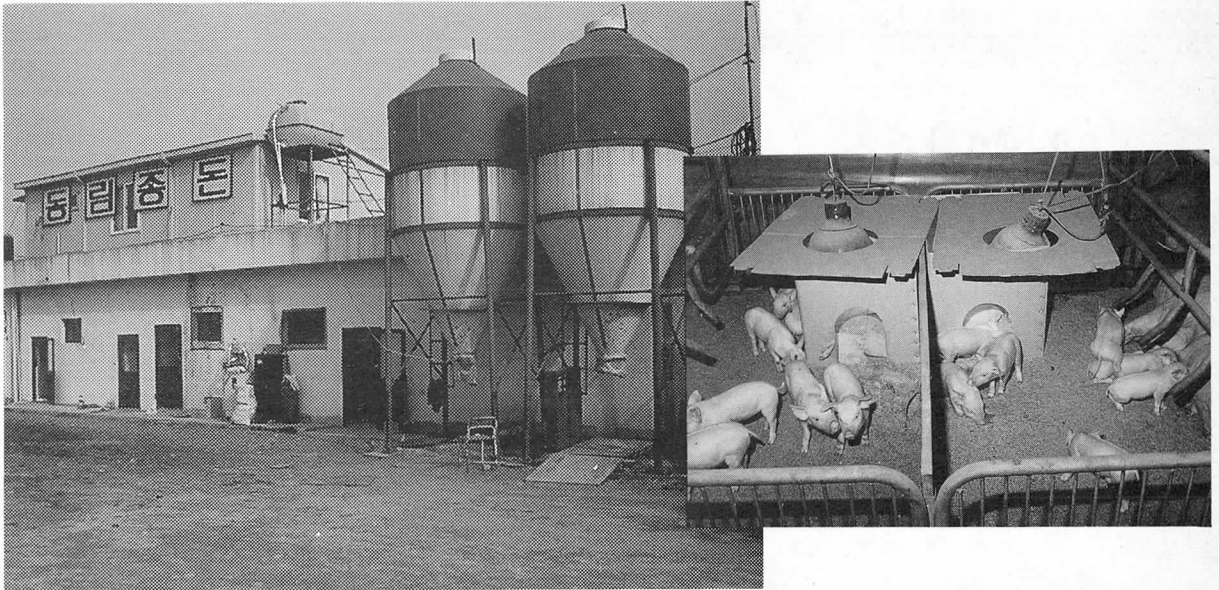
지난 '89년 종돈업을 시작해 '91년 기초돈 구축을 완료한 동림종돈은 '91년 겨울부터 검정소에 종돈을 출품, 지금까지 모두 62두의 챔피언돈을 배출했다.

모든 200두 규모로 13동의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림종돈은 요크셔, 랜드레이스 등 백색종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역사는 깊지 않지만 검정소 출품이후 '92 제1검정소 최우

수농장상과 '93 제2검정소 우수농장상을 계속 수상했고 슈퍼돈을 비롯한 많은 챔피언돈을 배출함으로써 급성장한 동림종돈은 이동열 사장과 정종기 분양사업소장, 생산과 직원 4명, 여직원 1명 등 7명의 인원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인력난을 극복하고 정성으로 돼지를 관리한 것이 오늘의 결과를 낳게 했다고 한다.

동림종돈은 지난 2월 24일부터 농장검정을 실시, 현재 월 생산두수의 80%에 대해 농장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100% 실시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



라고 한다. 또한 5월부터는 농장검정완료돈만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어 kg당 생산원가가 780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또 앞으로는 전국의 비육돈농장 경영주나 농장장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교육을 실시하여 비육돈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관리능력 향상, 의식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동림종돈은 철저한 기록으로도 유명하다. 농장전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각 개체에 관한 기록에도 철저를 기해 관리에 빈틈이 없게 하고 생산성 향

상을 도모하여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한다고 한다.

동림종돈은 지금까지 모두 357두의 검정소검정을 마쳤는데 그중 280두가 합격해 78.4%의 합격률을 보였고 90kg 도달 일령 139일, 일당증체량 915g, 사료요구율 2.31, 등지방두께 1.44cm, 선발지수 214, 낙찰률 99.2%를 나타냈다.

동림종돈의 돼지 평균생시체중은 1.6kg, 21일령 체중은 9.6kg이며, 80일령까지는 스톨사에서 육성시키고 그 이후에는 수시로 방목하여 강건성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3,500두의 수용능력을 갖고 있는 동림종돈은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확대해 수용시설에

맞는 돼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순종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GGP농장으로 남고 하부조직으로 F<sub>1</sub>, F<sub>2</sub>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8개의 GP농장을 설립하여 분업화할 예정으로 현재 3개의 GP농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종기 분양사업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GGP농장, GP농장, 비육돈농장 등을 피라미트 형태로 계열화, 전문화하여 청정돈 생산에 주력하고 모계와 부계를 구분 사양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